

# 인플레이션 압박에 소비 심리 위축...러·우크라이나 수출 기업 '타격'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조짐...광주·전남 경제 파장 촉각

## 12개 상장사 시총 '러 침공' 후 이틀새 9351억원 증발 원자재값 오르며 물가 3%대 상승 전망 '10년 만에 최고' 광주 87개·전남 130개 기업 '수출 통제' 피해 예의주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투자 심리도 움츠러들면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법인 16곳의

기업공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19조5350억원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3일(19조9976억원) 보다 2.3%(-4626억원) 감소했다. 이를 새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5000억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2.8% (80억원) 증가한 광주신세계와 대우에이텍(0.9% ↑), 조선내화(0.3% ↑), 한전KPS(동일)를 제외한 12개 상장사 시총이 9351억원 줄어 들었다. 한국전력 시총은 14조3800억원에서 13조9948억원으로 2.7%(-

3852억원) 감소했다.

세화아이엠피가 이틀새 바꾼 다이나믹디자인은 무려 33.5%(-187억원) 줄었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금호에이치티도 시총이 2.6%(-88억원) 감소했다. 금호건설(-3.2%), 대우플러스(-3.0%), 화천기공(-2.6%), 금호타이어(-2.4%) 등도 시총이 줄었다.

국의 투자 심리는 지난 25일(미 동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2.51% 오르는 등 일단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통화 긴축에 따른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달러, 예금,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민생 경제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부분은 물가 상승이다.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

을 키우고 이는 소비자물가를 더욱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현 1.25%로 동결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려 잡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존 전망치(2.0%)보다 1.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의 3%대 물가 상승률 전망은 약 10년 만에 처음이다.

연초부터 국제 유가가 뛰면서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평균 배럴당 73달러 수준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24일 기준 98.64달러까지 치솟았다.

국제 유가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경유 비용뿐 아니라 석유류, 가공식품 등 제조업 상품 전반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날 기준 지역 주요수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l당 광주 1746.37원·전남 1748.00원으로, 연초(1월1일)보다 각각 7.7%(125원), 6.9%(112원) 올랐다. 지난해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 2.6%로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이밖에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기업은 지난해 기준 광주 87개·전남 130개 등 217개사다.

광주는 우크라이나 수출기업이 18개사, 러시아 수출기업이 69개사 등 87개사, 전남은 우크라이나 수출기업 31개사, 러시아 수출기업 99개사 등 130개사에 이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라 수출 차질과 대금회수 등 어려움 발생이 예상된다. 점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제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기웅·백희준 기자 pboxer@kwangju.co.kr

## 지방 소재 기업 10곳 중 7곳 “지방 소멸 위협”

대한상의 수도권 외 513곳 조사 애로사항 1위 '인력 확보' 50.5%...판로 개척·자금 조달 순

지방소재 기업 10곳 중 7곳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못 느낀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항목에는 '최근 더욱 확대됐다'고 답한 비율이 57.9%에 달했다. '감소했다'는 13.3%, '변화 없다'는 27.7%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방 기업들이 지방소멸 위협을 느끼는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 탓도 있지

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불안감이 고조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50.5%가 '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어 '판로 개척' (14.0%), '자금 조달' (10.9%), '기술 개발' (7.2%), '사업 기회' (7.0%) 등을 들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비수도권에 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약 9만3000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 인력이 6만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인력난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기업들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5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폭적인 조세 감면' (38.4%), '지역인재 육성' (38.2%)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 시작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2월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된다.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

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 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전,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 금융계약 체결

6300억원 규모

한국전력은 총사업비 6300억원 규모 제주한림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금융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한림 해상풍력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1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 하반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한전은 제주 외에 1.5GW 규모 신인 해상풍력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60MW 실증사업 등 총 2.8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약의 금융주선사와 대주단은 모두 국내 금융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성과 위험성 분석, 경제성 검토, 실사 등 철저한 검증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만큼 국내 해상 풍력사업을 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 해상풍력 사업에는 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은 사업주주,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사로 참여했다.

한전은 사업을 총괄하고 주 기기인 풍력터빈 공급 및 유지보수는 두산중공업,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는 현대건설, 엔지니어링은 한국전력기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는 중부발전이 각각 담당한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10배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해상 풍력 시장에 국내기업과 동반 진출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며 "배후 항만 조성, 특수선박 제작·임대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진공 광주본부, 무역조정 지원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과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역조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 기업으로,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증가로 6개월 또는 1년 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곳이다.

중진공은 FTA 체결로 무역 피해가 확인되면 무

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재무·회계 상담을 제공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올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개사를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 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소상공인 살리기 '맞손'

광은-광주신보-서구청, 특례보증 대출 지원 협약...광주은행 5000만원 별도 출연

광주은행과 광주시 서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서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광주시 서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광주신보는 광주은행과 서구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모두 18억원 가량을 특례보증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보증료율은 연 0.7%이다. 대출 취급 후 1년 동안은 서구에서 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서구지역 139개 업체에 총 22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한 건수와 액수는 지난해 말 기준 2만7632건, 1조2584억원에 달한다.

송중욱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은행장이 서대석 서구청장과 지난 25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협약'을 맺고 5000만원을 특별 출연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 열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박병철)는 지난 25일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대표회원 100여명 등 참석자들은 '전문건설업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제정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문제점과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전문건설업계 권익신장 및 업력 증진에 공헌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관계 공무원과 종합건설사, 협회발전 유공회원사

등 38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박병철 회장은 "지난해 정부의 건설업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 등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1300여 회원이 합심해 전년 대비 3.1% 증가한 2조 8034억의 기성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제10대 집행부는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활동과 업력 확대, 수주물량 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0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5	30	37	39	44	1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76,251,913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3,143,430	68
3	5개 숫자일치					1,541,743	2,785
4	4개 숫자일치					50,000	140,047
5	3개 숫자일치					5,000	2,340,772

## “에어컨·세탁기 전기료 AI로 줄인다”

삼성전자-한전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 업무 협약

삼성전자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아파트 AMI(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컨소시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아파트 세대별로 전력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기 전문 업체인 피에스텍도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이 협약을 통해 한전이 제공하는 아파트 세대별 전력 데이터를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 서비스'에 연계해 한중진

화한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의 대표 서비스인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미리 설정한 누진 단계 도달이 예상되면 에어컨·세탁기 등을 절전모드로 제어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스마트싱스 에너지의 'AI 절약모드'를 활용하면 올해 출시한 비스포크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건조기의 월간 전력 사용량을 최대 21%까지 절감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